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권의석**

〈목 차〉

머리말

I. 동학농민혁명 이전 영국의 한반도 정책

II.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전 영국의 동학 인식

III. 동학농민운동 발발 당시 영국의 인식

IV. 청일전쟁 이후 영일관계의 변화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청일전쟁 이후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전통적 한반도 정책은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며 조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청·일 군대의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변화는 영국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초기에는 일본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며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영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정책을 수정하였다.

영국은 1893년부터 동학의 반외세성과 잠재적 혁명 가능성 때문에 이를 주시해 왔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당시에는 동학군이 민간인을 괴롭히지 않고 부패한 관아를 지목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드러내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국이 조선의 근대화를 통한 독립 유지보다는 일본을 러시아 견제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영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한영관계, 청일전쟁, 갑오개혁, 영국 대외관계

머리말

1894년 2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오와 횡포에 동학도와 농민군이 저항하며 봉기하면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민씨 세력이 득세하고 있던 조선 조정과 지방의 부패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외세의 접근으로 불안정해진 당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반봉건적, 반외세적 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조정의 개혁을 압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인 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일으켜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동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요 열강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19세기 초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일련의 전쟁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불평등조약을 맺고 청의 해안 도시를 개항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업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경쟁하던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남하를 막기

위해 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 역시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한국 방문기인 『조선과 그 이웃 나라(Korea and Her Neighbours)』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언급과 인식을 다루거나,¹⁾ 동학농민운동보다 청일전쟁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정책을 다룬 기존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²⁾ 또한 넓은 의미에서 지식인, 선교사 등 서양인 체류자가 당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본 시각을 다룬 연구,³⁾ 동학에 대한 서양의 보도 내용을 다룬 연구가 있다.⁴⁾ 이들 연구는 영국인이 동학농민혁명의 근본 원인을 조선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지목한 점 등 전반적인 동학농민혁명 인식을 밝혀냈지만, 이에 비해 한국 주재 영국 외교관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는 아쉽게도 없는 편이다.

본 논문은 영국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초기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인

-
- 1) 金喜永, 2007,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현실과 동학 농민 봉기」, 『동학연구』 23, 1~23쪽.
 - 2) 한승훈, 2020,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영국의 대조선정책과 관련해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63~97쪽.
 - 3) 金喜永, 2011, 「개화기 서양인들의 동학 인식」, 『동학연구』 30, 51-69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습격자”인가 “개혁자”인가?」, 『동학학보』 28, 483~533쪽; 이영호, 2011,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5~38쪽; 임희국, 2009, 「1890년대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한(來韓) 선교사들의 이해」, 『선교와 신학』 23, 181~212쪽.
 - 4) 김소영, 2018,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언론의 한국 ‘형상화’와 제국주의적 여론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47, 87~121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175~210쪽.

식하였는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학농민혁명 이전 영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영국의 대응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국의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이후 영일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I. 동학농민혁명 이전 영국의 한반도 정책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영국 측의 간헐적인 접촉 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있었지만, 조선과 영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883년의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시작이었다. 조선은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서양 열강과의 조약을 맺으며 조선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타국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의 경우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여 부동항(不凍港)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 역시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조선 내 침투를 우려한 청이 조선과 해외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는 한편, 동아시아 내 전통적인 세계질서로 자리매김했던 조공-책봉 관계를 근대적인 종주국-속국 관계로 전환하여 서양 열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도 역시 반영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약이 체결된 1883년부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1895년에 이르는 시기, 영국의 대조선 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1) 영국의 경제적·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2) 타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며, 3) 이를 위해 조선 주재 외교관을 북경 주재 영국 공사의 지휘를 받는 총영사로 임명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조·영간 무역과 조선 주재 영국인의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청의 명목적 종주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영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1885년 4월에 발생한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남하를 통해 식민지를 확장하고 해상으로의 접근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철저히 저지하고 세계 식민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던 영국의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영국 식민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국령 인도의 외곽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극에 달하였는데, 1885년 3월 30일, 아프가니스탄 펜제(Panjdeh)에서 영국군이 훈련한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러시아 군대의 공격에 패하는, 이른바 ‘펜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펜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세계 각지에서 고조되었는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러시아는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획득한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항을 건설하여 요새화하고 함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완전한 부동항은 아니었기에 한반도 내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 조선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다른 외세의 침략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있었다. 영국 역시 연해주에 주둔하는 러시아 함대가 남하하여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영국 식민지와 이권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 함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으로 향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문도를 영국 해군이 점령하여 무력시위를 행사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1885년 4월 16일, 조선 조정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었다.

영국의 거문도 무단 점령을 확인한 조선 조정은 적극적으로 영국의 철군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거문도 점령이 단순히 영국의 단독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러시아를 비롯하여 조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열강 역시 유사한 군사 행동을 통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처음에는 조선의 항의를 무시하면서 점령을 유지하는 한편,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정식으로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항의가 계속되고 영국과 러시아가 1885년 9월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 점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약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은 자국 군대가 거문도에서 철수하면 러시아 군대가 진주하여 조선의 영토를 점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기에, 러시아로부터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뒤에 철군하길 원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은 청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재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청이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종주국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었고 영국 역시 주청 영국공사가 조선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기에 조선의 주권과 영토 문제를 러시아와 논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청의 북양대신인 이홍장(李鴻章)이 북경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인 니콜라이 라디젠스키(Nikolai Ladyzhenskii)와 거문도 및 조선 영토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후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1887년 2월, 거문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군시키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영국의 거문도 점령 역시 막이 내리게 되었다.

1887년 거문도에서 해군이 철수한 이후, 영국은 조선에 대한 청의 명목상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열강이 조선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조선 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청의 경우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를 빌미로 조선 내에서 타국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세개(遠世凱)가 ‘총리 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라는 직함을 달고 타국 외교관보다 상석에 앉을 것을 고집하거나 미국 주재 조선공사가 청공사와 반드시 동행하고, 청공사가 상석에 앉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청공사에게 반드시 지령을 받도록 하는 ‘영약삼단(另約三端)’의 경우처럼 영국을 비롯한 타국 외교관의 조선 내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⁵⁾

하지만 영국은 청의 조선 내 우월적인 지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영국은 조선이 당시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근대화 역시 미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1890년대 초반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방문한 뒤 이에 대한 견문록인 『극동의 문제(The Problems of the Far East)』를 출간한 영국인 외교관 조지 커즌(George Curzon)은, 조선이 “품 안의 아이와 다를 바 없는” 허약한 국가이며, 조선 정부는 늘 “빛에 허덕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의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⁶⁾ 이처럼 허약한 조선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국력을 갖고 있는 청이 조선을 도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청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을 견제하는 것이 영국 정부와 외교관들의 입장이었지만, 한반도로 남하하는 러시아를 저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일본 역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국인 외교관 역시 늘어났다. 1892년 일본에 부임한 세실 스프링-라이스(Cecil Spring-Rice)의 경우, 일본이 조선에

5) 커크 W. 라슨 저, 양휘웅 역, 2021, 『전통, 조약, 장사: 청 제국주의와 조선, 1850-1910』, 모노그래프, 301~303쪽.

6) George Nathaniel Cu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Longmans, 1894). p.174, p.231.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중국, 조선과 영국이 함께 행동을 취한다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만약 양국이 조선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조선 내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단숨에 개입할 것”이라고 보았다.⁷⁾ 또한 일본과의 불평등조약 개정 문제가 진행되던 1894년 1월, 영국 외무성의 차관보인 프란시스 버티(Francis Bertie)는 일본 측의 요구를 묵살하게 될 경우 일본 내 반영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중국에 버금가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해안 방어망 역시 구축된 상황이며, “무장과 훈련 상태가 훌륭한 7만 명 규모의 육군”을 확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국방을 근대화하는 데에 성공한 “일본과 중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대한 목표가 있다면 러시아를 조선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이는 영국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영국의 이해관계와 동아시아 전략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이처럼 조선 내 영향력을 두고 청과 일본이 충돌하기 전까지, 영국은 청이 조선에 일정 수준의 정치력을 행사하도록 묵인하는 한편,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 가능성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조선 정책을 유지하였다.

II.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전 영국의 동학 인식

영국은 청이 조선을 장악하고, 일본이 이를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한

7) Stephen Gwynn(ed.), *The Letters and Friendships of Sir Cecil Spring-Rice: a Record*, Vol. 1 (Houghton Mifflin Co, 1929), 137.

8) Memorandum by Bertie with Minutes, FO, 13 Jan 1894, FO 46/445.

반도 위협 가능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길 기대하였지만, 조선 내에서는 개항 이후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투, 천주교 및 개신교를 비롯한 서양 종교의 도래로 인한 사상적 혼란, 정부와 관료의 부패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을 거치며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었다. 특히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청이 개입하여 조선 조정이 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외세를 척결하고 부패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동학이 농민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특히 1864년 처형당한 동학 교조 최제우(崔濟愚)가 흑세무민(惑世誣民)의 명목으로 처형당한 뒤 최제우의 죄명을 벗기고 교조의 원을 풀기 위해 박광호(朴光浩)가 이끄는 동학교도 40여 명이 1893년 3월 28일(음력 2월 11일)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교조의 신원(伸冤)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서울에 있는 교회, 외국인 자택, 공사관 등에 괘서(掛書)를 붙여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주조선 영국총영사인 윌리엄 힐리어(William Hillier)는 동학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주종영국공사 겸 주조선 영국공사였던 니콜라스 오코너(Nicholar O'coner)에게 보냈다. 이 보고서에서 힐리어는 동학이 “유사 종교 단체”로서 하층민에게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약 25년 전에 광신자(religious fanatic, 최제우를 지칭)가 수개월에 거친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고 창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충청도 공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⁹⁾ 남부지방과 서울에 많은 동학 신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학이 “순수한 종교 공동체로 출발하였으나 정치단체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을 조직하여 지방 관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⁰⁾

9) 제2차 교조신원운동 당시인 1892년 10월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 대한 신원 요구를 위해 공주에 교도가 집결했던 것 때문에 공주를 동학의 본거지로 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 조정, 특히 고종이 동학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전하는데, 고종은 동학 교도들이 외국인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비록 당장 외국인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주의를 사전에 기울일 것을 힐리어에게 조언하였다. 고종의 측근이었던 장위사(壯衛使) 한규설(韓圭設) 또한 힐리어에게 교조 신원 운동을 위해 올라온 동학 신도들이 1) 교조 최제우의 신원, 2) 외국인, 특히 일본인의 추방, 3) 행정 내 다양한 악습 제거를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요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¹¹⁾ 고종과 한규설 모두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이 주는 정치적 딜레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만약 교조의 신원을 회복시켜 동학의 종교 활동을 합법화하게 된다면 성리학(性理學) 이외의 다른 사상과 종교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비난하는 사대부가 분노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현재 동학의 교세가 강력한 상황에서, 조정이 이에 강하게 대응할 경우 혁명으로 발전하여 정부와 외국인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다.¹²⁾ 한규설이 이에 대한 힐리어의 의견을 묻자, 힐리어는 강한 대응을 가능한 피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시한 불만 사항에 대한 수사를 각 지방 관아에 의뢰하여 분노를 잠재울 것을 권하였다. 한편 외국인 추방에 관한 요구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한규설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¹³⁾

이처럼 고종과 조선 조정은 동학의 봉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지만, 힐리어는 고종이 동학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가 당시 퍼져 있던

10) Hillier to O'Conor, 31 March 1893, No.22, FO 228/1128.

11) *ibid.*

12) *ibid.*

13) *ibid.*

“조선 왕조가 500년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에 관한 소문이 동학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학교도들이 취하는 태도를 근거로 할 때 동학교도가 대규모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힐리어는 판단하였다. 특히 서울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수가 1880년대 초, 임오군란(壬午軍亂)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교할 때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한국인 군중의 폭력을 저지하면서 제물포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성공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학교도의 봉기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았다.¹⁵⁾

힐리어가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지방은 이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민중을 지나치게 수탈하다가 살해당하거나 추방당하는 지방 관리에 대한 소식이 꾸준히 서울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힐리어는 군대나 경찰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다면 봉기에 국가가 전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힐리어는 흥미롭게도 당시 한국 남성들이 즐겨 하던 석전(石戰)을 통해 잠재적인 혁명 가능성을 아래처럼 언급하였다.

매년 이 시기 도시 성곽 밖에서 며칠에 걸쳐 열리는 석전을 본 사람은 누구든 한국인이 타고난 싸움꾼임을 인정할 것이다. 석전은 싸움을 위한 순수한 사랑을 갖고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방망이와 돌로 상대를 공격하고, 양측에 수백 명이 집결하며, 매년 충돌할 때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매년 10여 명은 꼭 사망하였다. 이 싸움은 시골 마을 어디서든 벌어지며, 마치 잉글랜드의 축구선수가 강한 충돌 자국을 자랑하는 것처럼 한국인 역시 머리에 찢어진 흉터를 갖고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만약 지도자가 제대로 이들을 이끈다면, 한국인은 그들이 공감하는 가치를 위해 동물적인 용기를 갖고 싸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¹⁶⁾

14) *ibid.*

15) *ibid.*

또한 광화문 앞에서 벌어진 교조신원운동과 함께 미국인 선교사 자택의 정문에 붙은 궤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힐리어는 해당 궤서의 문장이 독설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하늘의 가르침을 이미 습득하고 통달하였음에도 선교사들이 공허한 학문을 들고 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동학이 갖고 있는 선교사와 이들의 교육 방식에 대한 적대감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궤서의 번역문을 함께 주중영국공사에게 보고하였다.¹⁷⁾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인의 자택과 일본공사관에 붙은 궤서 역시 번역하여 주중영국공사에게 제공하면서 동학교도가 일본인에게 더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¹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조선 영국총영사관은 동학교도 다수가 서울을 방문한 1893년 3월 말의 제3차 교조신원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동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이 종교적 단체로서 출발했지만 그 세를 불려가면서 점차 정치적인 요구를 통해 지방 관아를 압박하는 정치단체로 성장하였음에 주목하면서, 주조선 영국총영사관은 동학이 당장은 평화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Ⅲ. 동학농민운동 발발 당시 영국의 인식

1893년부터 동학운동의 반외세적 성격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온 영국 측은, 189년 2월 고부에서의 봉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일대에서 빠르게

16) *ibid.*

17) Hillier to O'Conor, 3 April 1893, No.24, FO 228/1128.

18) Hillier to O'Conor, 10 April 1893, No.26, FO 228/1128; Hillier to O'Conor, 19 April 1893, No.27, FO 228/1128.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5월 11일 주조선 총영사인 크리스토퍼 가드너(Christopher Thomas Gardner)가 주중 영국공사인 니콜라스 오코너에게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군이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이 처음 봉기한 고부에서 태인(泰仁)으로 이동하였으며 동학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조정은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에 임명하여 토벌을 명하였으며, 서울에서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⁹⁾ 5월 15일에는 황토현 전투에 대한 보고를 하였는데, 부안 관아를 습격하고 무장한 동학군이 이들을 진압하러 온 관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파악한 뒤 공격을 가해 이들을 격퇴하였고, 관군과 민간인을 동원해 동학군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오히려 동학군 측에 투항하는 이가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⁰⁾ 또한 이 보고서에는 부안, 고부, 태인 등 봉기와 관련된 주요 지역을 표기한 한반도 지도와 함께, 당시 인천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인 《조선신보(朝鮮新報)》 1894년 5월 12일자 기사 내용을 첨부하여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뒤 동학군이 흥덕(興德), 나주(羅州), 태인, 고창(高敞), 부안 등지를 장악하였다는 등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였다.²¹⁾

주조선 총영사관은 동학군이 관군에 대해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와 민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역시 언급하였다. 5월 21일에는 동학군이 장악한 전라도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발발이 전라도 지역에 불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동학군 지도자들이 군대를 잘 통제하고 있어서 피해를 당한 주민이 없으며, 동학군은 주로 관아를 습격하여 창고나 무기고를 털고 지역 관리를 포획하여 인질로 삼고자 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동학군이 민간인을 적대시하거나 공격

19) Gardner to O'Conor, 11 May 1894, No.28, FO 228/1168.

20) Gardner to O'Conor, 15 May 1894, No.32, FO 228/1168.

21) *ibid.*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²⁾ 또한 동학군은 각 관아에 궤서를 붙이면서 선하고 어진 군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폭정을 일삼는 지방 관리를 규탄하였는데, 이 궤서의 번역문을 첨부하면서 동학군이 사용하던 슬로건인 “보국안민대창의(輔國安民大倡義)”를 그대로 한자로 남겨 전달하기도 하는 등 동학군을 단순히 폭도로만 묘사하지 않았다.²³⁾

영국 측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청 군대가 조선에 진입할 경우,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유사시 상대국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1885년의 텐진조약을 위반하게 되어 조선 내 영향력을 두고 대립하는 양국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조선 남부 지역인 전라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민전쟁이 북부 지방으로 확대되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²⁴⁾ 그리고 오키너 주청공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부패한 관료들과 후진적인 체제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조선 영국 총영사관인 가드너를 통해 고종이 조선 내정을 개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⁵⁾

하지만 영국의 예측보다 빠르게 동학농민군이 전주를 함락하고 조선 조정이 수세에 몰리자 영국 역시 이에 따른 대응을 취해야 했는데, 특히 동학군의 전주성 함락 이후 이에 대한 기사가 외신에 보도되면서 영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야 했다. 1894년 6월 4일, 《더 가디언(The Guardian)》을 비롯한 영국 언론이 미국 워싱턴발 기사에서 주미한국공사관이 농민군이 전라도를 장악한 상태이고, 현재 모든 외국인

22) Gardner to O’Conor, 21 May 1894, No.35, FO 228/1168.

23) *ibid.*

24) 한승훈, 2020,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72~73쪽.

25) 위의 논문, 73쪽.

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제물포에 최대한 일찍 도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종의 지령을 언급하였다. 또한 주미 한국공사관 측이 미국 국무부 장관인 월터 그리삼(Walter Q. Gresham)에게 동학농민혁명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학운동의 반외세적 성격에 우려를 표하던 영국 정치인을 다시 한번 자극하였다.²⁶⁾

영국 매체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영국 리버풀(Liverpool)의 커크데일(Kirkdale)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보수당 출신 하원 의원인 조지 바덴-포웰(George Baden-Powell)은 다음날인 6월 5일 외무부 차관인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에게 “현재 보도된 조선 내 봉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특히 “해당 봉기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루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영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영국 군함이 조선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그레이 차관은 “현재 영국 정부가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영국 해군이 북중국에 6척의 군함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당 군함이 조선으로 파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음을 인정하였다.²⁷⁾

또한 1894년 6월 초에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응해 군대를 파견하기로 하고, 일본 측 역시 청이 파병을 결정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하기로 하면서, 영국이 기대했던 조선의 자체적인 내정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여전히 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충돌과 이를 이용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길 원한 영국은,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중재 요청을 수락하여 6월 13일 영국 외무부 장관인 킴벌리 백작(John Wodehouse, 1st

26) The Rising in Corea: Foreigners in Danger, Monday, 4 June 1894, *The Guardian*, p.8.

27) Corea, Volumn 25: Debated on Tuesday 5 June 1894, Hansard.

Earl of Kimberley)을 통해 주영일본공사인 아오키 슈조(青木周蔵)와 회담을 하면서 청일간의 충돌이 결국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측이 이를 피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다.²⁸⁾

하지만 일본은 청이 조선에 파병할 때 일본 역시 조선에 대해 파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1885년 텐진조약을 기반으로 일본이 청과의 '평행적 관계'를 바탕으로 청과 동일한 영향력을 조선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²⁹⁾ 또한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을 피하는 임기응변일 뿐, 장기적으로 조선이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평화적으로 발전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조치까지는 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일본 정치권 내에서 팽배하였다.³⁰⁾ 반면 청 입장에서 1885년의 텐진조약은 조선 내 청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현상 유지의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일본과 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자국의 조선 내 영향력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 청이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처럼 이미 청의 거부로 결렬된 공동위원회 안을 영국이 제안하고 이를 일본이 수용하길 거부하자, 영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공동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조선 조정이 주요 열강에 청과 일본의 동시 철병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를 수용하여, 6월 24일 고종이 조선 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화약(和約)이 체결되어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면서 영국 총영사, 미국공사, 프랑스공사, 러시아공사, 독일영사에게 서구 열강의

28) 한승훈,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9-2, 74~75쪽.

29) 위의 논문, 76~77쪽.

30) 위의 논문, 78쪽.

중재 요청을 하였고,³¹⁾ 6월 26일에는 서울 주재 해외 외교관 역시 이에 호응하여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³²⁾

영국이 청일을 단독으로 중재하려다 실패하자, 조선 조정과의 협력을 통해 서구 열강 공동의 지지를 끌어내면서까지 일본을 압박하고 철병을 유도하고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가 단독으로 청일 간의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자, 영국 측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청일 이외에 한국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열강인 영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두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³³⁾ 이러한 판단에 따라 러시아가 6월 30일에 일본 측에 조선 조정의 철병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반도로부터 일본군이 철병할 것을 주문하자, 이미 일본은 7월 2일에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³⁴⁾ 영국이 러시아가 단독으로 일본과의 철군 교섭을 진행한다는 소문을 접한 시점은 7월 6일로 이미 일본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영국은 러시아가 단독으로 중재할 때 서구 5개 열강이 동시에 하는 간섭에 비해 덜 압박을 느껴 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³⁵⁾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공동 중재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4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중재안을 추진하여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인 압박을 유지하여 청일의 동시 철군을 성사하고 조선이 자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31) 『구한국외교문서』 13권 영안 1, 「中日軍의 撤收에 關한 調停 依頼事」, 1894년 6월 21일.

32) Gardner to O'Conor, 21 May 1893, No.35, FO 228/1168.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권, 「對韓政策에 關한 意見 上申의 件」, 1894년 6월 26일.

3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권, 「朝鮮事件 1」, 1894년 7월 4일.

35) 한승훈,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9-2, 85쪽.

하지만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청 역시 일본이 제안한 양국 주도의 조선 내정 개혁안을 거부하며 철군을 거부하면서 유럽 열강의 공동 중재안을 거부하자, 영국은 차선책으로 청이 서울과 제물포 이북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고, 일본은 서울과 제물포 이남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조선을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하여 공동으로 점령·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³⁶⁾ 해당 공동 점령안은 청일이 합의를 끌어내는 동안 청일이 조선의 안전을 관리하고 담보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 내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고 조선 내정 개혁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임명하며, 청일 양국이 조선과의 통상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청의 속방론을 인정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³⁷⁾ 청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등 공동 중재에 참여하는 열강들 역시 영국이 제안한 공동 점령안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얻어냈지만, 일본이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일본군이 단독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뒤 청국의 함대를 공격하면서 결국엔 무산이 되었다.

이처럼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주조선 영국총영사관은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과 청군과의 교전 상황, 조선 조정에 대한 개혁 압박 등 영국 정부와 주청 영국공사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보고는 줄어들게 되고, 주요 영국 언론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간헐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더 가디언》은 청일전쟁 개전 직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의 왕이 사실상 인질 상태에 있으며,³⁸⁾ 1894년 9월 7일 조선의 개혁에 관한 주요

36) 위의 논문, 87~88쪽.

37) 오비나타 스미오, 2009,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왕현중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156~157쪽.

38) China, Japan, and Korea: Rumoured Declaration of War, Landings of British and American Marines, Monday, 23 July 1894, *The Guardian*, p.5; The Quarrel between Japan and China: Reported Attack on a Chinese Fleet, the King of Korea a Prisoner, American Marines Landed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 조정이 일본과 협력하면서 약속했던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단교를 통한 청의 종주권 부정, 종교적 자유의 보장, 외교 전담 부서의 신설, 노예제 폐지, 연좌제 금지, 과부의 재혼 허가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³⁹⁾

하지만 일본의 경복궁 점령,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갑오개혁(甲午改革) 등으로 인해 민중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채 재결집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발생하자 영국 언론 역시 이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London Evening Standard)》는 1894년 9월 14일 기사에서 《로이터(Reuters)》발 보도를 인용하며 한반도 남부 지방 전역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봉기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2천 명이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동하다가 이들 반군과의 충돌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결국 8백 명에 불과한 병력만 부산으로 복귀하여 일본군에 대한 동학농민군의 공격과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다.⁴⁰⁾ 《더 가디언》의 1894년 10월 23일 기사 역시 ‘동학(The Tonghaks)’라는 명칭을 언급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서울 이남에 대거 결집해 있으며,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북쪽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 기사는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동학과 연대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 때문에 4백 명의 일본군이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로 인해 촉발된 혼란에 대해 묘사하였다.⁴¹⁾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로 인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영국 측은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반봉건적, 반외세적

at Seoul, Saturday, 28 July 1894, *The Guardian*, p.8.

39) The War in the East, Friday 7 September 1894, *The Guardian*, p.8.

40) The War in the East, Friday 14 September 1894, *London Evening Standard*, p.5.

41) The War in the East, Tuesday, 23 October 1894, *The Guardian*, p.8.

성격보다는 ‘일본이 주도하는 서구화 개혁에 반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94년 10월 24일의 《더 가디언》 보도에는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 남부 지방은 ‘동학’이라고 하는 광신도들의 반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들은 서구적 가치의 도입을 증오하며, 이런 일을 벌인 가장 큰 책임자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모두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싸움을 담고 있는데, 양측간의 대립은 이제 게릴라 전쟁 단계로 접어들었다.[...]42)

영국 언론들은 동학농민군을 ‘광신도’로, 혹은 ‘도적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1894년 11월 13일 기사에서는 경상도 지역 내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다루면서 농민군을 ‘동학 도적떼(Tonghak robbers)’로 언급하였는데, 일본군과의 교전 이후 이들 가운데 6명이 사살되고 29명이 포로로 잡혔음을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충돌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른바 반군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도적(Banditti)일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동학농민군을 일본이 주도하는 서구화 개혁에 반대하는 반동적인 광신도, 도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43)

이렇게 영국 언론은 동학농민군을 도적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을 점령한 상태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여 조선 내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는 일본군의 활약상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부 지방에서의 동학군 반란과 일본군의 진압을 다룬 《더 가디언》의 1894년 11월 17일 기사는, 스즈키Suzuki 대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활약상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42) Our London Correspondence, Wednesday 24 October 1894, *The Guardian*, p.5.

43) *The War in the East*, Tuesday 13 November 1894, London Evening Standard, p.5.

오늘 부산에서 파견된 분견대 측에 따르면 남부 지방의 반군 및 도적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동학혁명의 재발로 인해, 능력 있는 장교로 잘 알려진 스즈키 대위는 질서를 회복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분견대를 이끌고 진신(Chinshin)으로 진입하여, 여러 차례 영리한 매복 작전을 실행하였다. 11월 17일의 전투에서 군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적의 규모가 스즈키 대위의 부대에 비해 훨씬 컸고, 반군도 잘 싸웠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패주하였고, 현장에서 186명이 사상당하였다. 부상자들은 운송되었기에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다. 스즈키 대위는 이외에도 다수의 탄약과 무기를 압수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단 세 명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⁴⁴⁾

또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조선의 운영 및 관리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기사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더 가디언》의 1894년 12월 5일 기사는 우금치 전투에 대해 다루었는데, 일본군과 조선군이 충청도 아산에 상륙한 뒤 공주로 이동하여 수천 명의 동학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들이 패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동시에 전쟁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1894년 11월 중 일본에서 조선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부 상품을 해군 선박으로 운송한 점이 주효했음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각시켰다.⁴⁵⁾ 영국 언론은 이미 조선인이 일본의 행정 관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이 여전히 황해도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주도의 서구화 작업에 반하는 반동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다.⁴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청일전쟁 발발 전후의 동학농민혁

44) The War in the East, Saturday 17 November 1894, *The Guardian*, p.7.

45) The War in the East, Wednesday 5 December 1894, *The Guardian*, p.8.

46) The War in the East, Thursday 27 December 1894, *The Guardian*, p.8.

명을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라보았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고 동학군이 전주성을 함락하자 동학군의 반정부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조선 조정의 무능과 부패에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과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자, 무력 충돌로 가는 상황만은 피하고자 영국은 단독 중재, 그리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유럽 열강의 공동 중재를 제안하며 일본을 압박하였지만, 결국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청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영국의 중재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영국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심은 일본이 주도하는 서구적 개혁을 거부하는 ‘도적 집단’, ‘광신도 집단’으로 보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동학농민군을 반동적인 존재로, 일본을 근대적인 역량을 갖춘 국가로 이해하게 했다.

IV. 청일전쟁 이후 영일관계의 변화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하며 일본의 승리로 끝난 청일전쟁은 영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이 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 되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1894년 이전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영국이 막대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남하하여 영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일을 차단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고, 이는 영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기존 1887년 거문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이 러시아와 이룬 합의, 즉 청이 러시아의 남하로부터 조선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합의 자체가 청의 허약한 국력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⁴⁷⁾ 이 때문에 일본은 영국의 단독 중재안, 서양 열강의 공동 중재안, 영국의 조선 공동 점령

안 모두 일본이 거부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영국 역시 일본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⁴⁸⁾

또한 영국 역시 청일전쟁 발발 전부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영국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894년 7월 16일 체결된 영일통상항해조약이었다. 1858년의 영일수호통상조약은 영사재판권과 같은 독소조항을 품은 불평등조약이었고, 일본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 서구 ‘문명국’과 같은 수준의 헌법, 의회와 사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매진하였다. 1899년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1890년 제국의회를 설립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출범시킨 일본은 근대화된 입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바탕으로 영국과 조약 개정에 나서게 되었고, 영사재판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일본의 ‘비문명적’인 사법체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약 개정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영국 역시 조약 개정에 동의하고 영사재판권과 일방적 최혜국대우를 포기한 새로운 조약을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 7월 16일에 체결하면서, 영국은 일본이 더 이상 ‘비문명국가’가 아닌 서구적 법체계와 정치체계를 갖춘 ‘문명국’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에 영국의 계속되는 청일 간의 중재 시도가 좌절되면서, 영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 7월 22일, 일본과 청 간의 전쟁이 발발할 때 상해를 포함한 양자강 유역이 영국 이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교전은 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틀 뒤인 7월 24일 일본 측이 상해 일대에서의 교전을 피해달라는 영국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⁴⁹⁾ 영국이 청일전쟁

47) 한승훈,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9-2, 78~79쪽.

48) 위의 논문, 90~91쪽.

발발 직전 상해 지역의 이권 보장 문제를 두고 일본과 타협을 한 점 역시 영국의 동아시아 내 지도력이 더 이상 압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국의 중국 내 이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일본이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점 또한 일본이 청을 충분히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영국이 사실상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평양 전투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승기를 잡은 1894년 10월 초부터 영국은 주일영국공사를 통해 일본 측에 전쟁 승리 시의 강화 조건이 ‘조선의 독립 보장’과 ‘청국의 전쟁 비용 배상’인지 확인하면서 일본 측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면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압박하였다.⁵⁰⁾ 하지만 일본 측은 조선의 독립 보장 문제, 청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여순(旅順), 대련(大連)이 있는 요동반도가 차후 청과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요동반도의 점령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⁵¹⁾ 일본 측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요동반도에 대한 항구적인 점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를 시모노세키 조약에 명문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⁵²⁾

하지만 일본 역시 청의 영토 일부를 할양하는 문제에 대해 청 내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열강이 공동으로 간섭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가인 영국과 러시아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고민하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이 청의 개항장 내에 불법으로 형성된 100여 개의 외국인 소유 공장 가운데 63개가 영국 자본에 의한 공장일

49) 金志煥, 2005, 「清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125~126쪽.

50) 조명철, 2010, 「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267~268쪽.

51) 위의 논문, 269쪽.

52) 위의 논문, 270쪽.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시모노세키 조약 6조 4항에 ‘개항장 내 열강의 설창권(設廠權)’ 부여를 명문화하고 영국을 포함한 조약국이 최혜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영국에 경제적 실익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이를 해결하였다.⁵³⁾

일본은 또한 일본이 요동반도를 합병하면 가장 큰 우려를 하게 될 러시아에 대해서도 일본이 ‘러시아의 조선 내 이익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고자 하였다.⁵⁴⁾ 하지만 러시아가 청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 및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지 주일 만인 4월 23일에 주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공사가 일본 정부에 요동반도의 할양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면서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개입 역시 고려하겠다고 위협하였고, 3국 열강이 강화조약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간섭하면 이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하여 요동반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으로부터의 추가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이 완전히 독립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하여 청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기존 영국의 한반도 정책은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895년 10월 25일, 영국 총리인 로버트 세실 솔즈베리 경(Lord Robert Cecil Salisbury)은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 주영일본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조선이 자원을 개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영국의 조선 독립지지 입장을 확인하였고, 조선의

53) 金志煥, 「淸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128쪽.

54) 위의 논문, 129쪽.

독립은 조선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 일본, 러시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⁵⁾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의 성공적인 내정 개혁이었다. 이미 영국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할 당시부터 이러한 봉기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조선 조정의 부패와 무능을 지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도 조선이 자력으로 내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독립을 유지할 역량을 갖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1895년 10월 9일, 주일영국공사였던 어니스트 사토우(Ernest M. Satow)는 프레데릭 디킨스(Frederick V. Dickins)에게 쓴 편지에서 조선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조선은 또 다른 모로코가 될 것이다. 누군가 이를 탐내서 싸우다가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니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썩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하는 과일이 될 것이다.⁵⁶⁾

조선의 내정 개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것은 사토우 주일공사뿐만이 아니었다. 1896년부터 1905년까지 영국총영사이자 한국공사로 복무한 존 조던(John Jordan)의 경우, 그의 임기 중에 벌어졌던 독립협회의 개혁 시도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다가 대한제국 황실과 정부의 개입으로 개혁이 좌절된 데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기도 하였으며, 1902년 고종이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고종이 통치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고 국가 통치에는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⁵⁷⁾

55) Salisbury to Satow, 25 October 1895, No. 22, FO 405/65.

56) Ian C. Ruxton, 1998,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N.Y.: Lewiston, p.218.

이처럼 조선의 자립 노력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영국이 주목한 것이 일본이었다. 이미 1895년 8월, 사토우는 영국이 조선에 대한 상업적 이익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조선 합병”을 저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⁷⁾ 영국은 청의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지고 자립 능력이 부족한 조선에서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세력으로 일본을 지목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 측은 일본이 조선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영향력이 조선 내 질서를 유지하고 조선 조정의 근대화를 자극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1894년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청의 영향력을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저지한다는 영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이 임박해지자, 영국은 조선의 영토 보전을 청에 맡긴다는 기존 제안까지 뒤집고 일본에 조선 공동 점령안을 제안하며 러시아 저지라는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영국의 동아시아 이익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 역시 기존의 청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정책을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조선의 자립을 통한 러시아 남하 저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영국이 동학농민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던 조선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근대화를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과연 조선이 단독으로 성공적인 내정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영국 외교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

57) 朴枝香, 2001, 「이미지와 국가 이익 : 영국의 對日, 對韓 인식과 대외정책 결정 1860~1920」, 『역사학보』 169, 221~222쪽.

58) Ian C. Ruxton, 1998,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N.Y.: Lewiston, pp.201-202.

었다. 이 때문에 조선 내 러시아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면서, 이미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조선 내 영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영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결국 1902년 영일동맹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이익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이르게 되었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촉발된 청일전쟁 이후 영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의 전통적인 한반도 정책은 조공-책봉 관계에 입각한 청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 환경 역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단기간 내에 성장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영국 내에서 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1894년 초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여 동학군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대응에 실패한 조선 조정의 요청에 따라 청이 파병하고 일본 역시 군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영국은 청일 간의 무력 분쟁이 러시아에게 조선 문제에 개입할 기회를 줄 것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은 처음엔 단독으로, 이후에는 다른 열강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여 조선에 파견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청일의 조선 공동 점령안까지 제시하며 기존의 한반도 정책에서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일본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이 빠르게 조선을 장악한 뒤에는, 영국은 동학농민군을 ‘도적’으로 묘사하고 이들을 진압하는 일본군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건적 성격은 무시하는

피상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국의 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책 역시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영국의 청 내 이권을 보장하는 한편,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굴복하여 요동반도 할양을 포기하게 되면서, 영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 내 러시아 남하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변화하여, 조선이 내정 개혁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여 독립 유지를 위한 국력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영국 외교관들은 조선의 근대화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일본을 주목하게 되고, 이는 1902년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내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영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국의 인식이었다. 영국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여 한반도 남부를 장악하게 되자, 근본적인 문제로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하였고, 이는 청일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동학이 가지고 있는 반외세적, 반봉건적 성격의 외적인 면에만 주목하여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거나, 일본군과 조선 관군을 습격하는 도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한계 역시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의 남하라는 영국의 세계전략을 우선으로 한 한반도 문제 접근 방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투고일 : 2024. 10. 1.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9.

참고문헌

<자료>

『구한국의외교문서』

『駐韓日本公使館記録』

FO 228/1128

FO 228/1168

《London Evening Standard》

《The Guardian》

<단행본>

키크 W. 라슨 저, 양휘용 역, 2021, 『전통, 조약, 장사: 청 제국주의와 조선, 1850-1910』, 모노그래프.

Ruxton, Ian C., 1998, *The Diaries and Letters of Sir Ernest Mason Satow (1843-1929), a Scholar-Diplomat in East Asia*, N.Y.: Lewiston.

<논문>

김소영, 2018,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 언론의 한국 '형상화'와 제국주의적 여론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4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87~121쪽.

金志煥, 2005, 「淸日戰爭期 中國 外交路線의 變化」, 『동학연구』 19, 한국동학학회, 103~134쪽.

金喜永, 2007,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사회의 현실과 동학 농민 봉기」, 『동학연구』 23, 한국동학학회, 1~23쪽.

_____, 2011, 「개화기 서양인들의 동학 인식」, 『동학연구』 30, 한국동학학회, 51~69쪽.

林枝香, 2001, 「이미지와 국가 이익: 영국의 對日, 對韓 인식과 대외정책 결정 1860~1920」,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9~243쪽.

비온티노 유리안, 2013, 「한말 시기 조선에서 서양인이 본 동학운동」,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483~533쪽.

_____, 2016, 「서양인이 본 청일전쟁(1894-1895) -서양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0, 동학학회, 175~210쪽.

오비나타 스미오, 2009, 「청일전쟁 전후 일본 정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왕현종 외,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2011,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한국기독교와

-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5~38쪽.
- 임희국, 2009, 「1890년대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한(來韓) 선교사들의 이해」, 『선교와 신학』 23,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181~212쪽.
- 조명철, 2010, 「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63~289쪽.
- 한승훈, 2020, 「청일전쟁 직전 영국의 외교적 간섭 실패와 패권적 지위 균열: 영국의 대조선정책과 관련해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63~97쪽.

〈Abstract〉

British Percep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hange of Anglo-Japanese Relations

Kwon Euy Suk*

This study analyses Britain's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hanges in British strategy in East Asia after the Sino-Japanese War. Britain's traditional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focused on recognising Qing suzerainty, minimising interference in Korea, and deterring Russian expansion southwards. However, the outbreak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deployment of Qing-Japanese troops amplified Britain's concerns and led to initially unsuccessful attempts at mediation by demanding the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After the Sino-Japanese War ended in Japanese victory, Britain revised its East Asian policy to work with Japan to contain Russia.

The British had been monitoring the Donghak movement since 1893 for its anti-foreign nature and potential revolutionary potential, and wh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roke out in 1894, the British portrayed it positively, noting that the Donghak army did not harass civilians and targeted the corrupt offices. Howev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exposed the corruption and incompete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internal political reform. This led to a shift in British policy towards recognising Japan as a key partner in countering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Wonkwang University

Russia, rather than maintaining independence through modernis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nge in British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Korean-British Relations, Qing-Japanese War, Gabo Reform, Britain's Foreign Policy

